

MOST 과학기술부 공보관실	보도자료 □□□□□□□□□□		보도 시점	'05.11.24(목) 석간부터		
	담당 당	과학기술정책국 기술혁신제도과	자료배포일	'05.11.23	매 수	총 6 매
			과 장	강갑수	02)2110-3780 (010-3159-3780)	
			사무관	조희래	02)2110-3781 (011-1705-3962)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를 위한 신약 후보물질인
「AAD-2004」의 실용화를 본격 추진키로**
- 「제12회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추진방안 확정 -

-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 : 吳 明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위원 :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 및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가 11월 24일(목)에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안건>

- ① 뇌질환 치매 치료제 AAD-2004 개발계획
- ② 환경분야 TMS 측정기기 국산화 기술개발 및 수출활성화 방안
- ③ IT 부품소재산업 육성계획
- ④ 바이오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전략

- (1) 첫 번째 안건인 「뇌질환 치매 치료제 AAD-2004 개발계획」은 뇌과학 프론티어사업('03~'05년)을 통해 개발된 AAD-2004를 뇌질환 치매 치료제로 실용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재원조달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i) (사업개요) 보건복지부는 알츠하이머병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는 물질로 평가되는 AAD-2004의 약효와 동물독성평가 등 전 임상 시험과 인체에 대한 1단계 임상시험을 추진하여 치매치료물질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 ii) (추진체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국내외의 우수 임상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실용화사업단을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사업관리기관으로 선정하고 산·학·연의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시행계획과 평가 등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하였다.
- iii) (재원조달 및 투자비 회수방안) 2006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소요되는 총 200억원의 재원은 정부의 연구개발비 120억원과 참여기업인 (주)뉴로테크가 부담하는 80억원으로 충당하고, 연구개발협약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하는 동시에 임상시험 성공시 코스닥과 나스닥 상장을 통해 연차적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해 나가기로 했다.
- iv) (기대효과) 뇌질환 치매 치료제의 1단계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2009년에 7천억원 규모의 기술가치가 창출되고,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3단계 임상시험까지 완료되어 본격적인 시장 진입이 이루어지면 2013년에는 세계 치매약물시장의 최소 5%를 점유하게 되어 연간 4천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2) 두 번째 안건인 「환경분야 TMS 측정기기 국산화 기술개발 및 수출활성화 방안」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굴뚝자동감시체계(TMS)의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국산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i) **(국산화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추진)** '06~'08년까지 50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현재 11.5%인 TMS의 국산화율을 2010년 30%수준으로 높여나가기로 하였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도 진출 가능한 먼지측정기, 멀티가스측정기 등을 집중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TMS 측정기기 관련 업계와 연구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클러스터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 ii) **(수출활성화 방안)** 중국과 동남아 환경기술인력 초청연수, 국내외 환경기술전시회, 국제회의 등을 활용하여 국내 TMS 활용사례와 우수 국산기술을 적극 소개하고, KOICA(한국국제협력단) 무상 원조를 통해 국산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로 했다.
- iii) **(추진체계와 향후계획)** 국산화 기술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TMS 핵심기술에 대한 국산화와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제를 선정·개발하고, 해외 시장진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3) 세 번째 안건인 「IT 부품소재산업 육성계획」은 향후 5년간('06~'10년) 약 6,954억원을 투자하여 IT기반 융·복합화와 글로벌 경쟁의 심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IT-SoC분야를 집중 개발하는 등 IT부품·소재산업의 육성·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i) **(비전과 목표)** 2010년까지 세계 3대 IT부품·소재강국 달성을 목표로 IT-SoC분야의 전문인력 6,000명을 양성하고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 15개를 육성하면서, 세계 IT 융합부품·소재 시장점유율을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 ii) (IT-SoC 산업의 전략적 육성) 창업-설계, 제작-검증, 시험-마케팅 등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핵심 IP(반도체 설계 자산)의 확보와 유통 활성화를 통해 IT-SoC 산업의 부가가치를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 iii) (IT 부품·소재 연구개발 추진) IT부품소재 기초원천·융합기술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조직과 인력을 재편성하여 IT 부품·융합연구센터(가칭)를 설립하고, IT 시스템-부품체계도('05.9)에 따라 도출된 200개 부품 중 78개의 기술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 iv) (IT 부품소재산업의 인프라 확충) IT 부품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시장·정책 등에 통합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2010년까지 IT-SoC분야의 고급 설계인력 1,000명과 산업체 맞춤형 실무인력 5,000명을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 v) (IT 부품소재 수요기반 창출) DMB·WiBro 등 첨단·신규 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하여 시스템-부품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디지털 홈·유비쿼터스 로봇 등 IT839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초기 시장을 형성해나가기로 했다.

(4) 네 번째 안건인 「바이오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전략」은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5.5)에서 논의된 「바이오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바이오 연구개발에 대한 범부처적 종합 조정·기획·평가의 추진과 관련부처간 협조·연계를 위한 효율적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8개 부처 공동으로 바이오 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3대 전략, 7대 과제」를 최종 도출하였다.

i) 전략 1 : 바이오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 첫째, 바이오 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조정·협의기능의 강화를 위해 「바이오실무협의회」를 신설하고 바이오 의약/식품/환경 등 응용 분야와 바이오 연구개발/산업/생명윤리 등 세부의제에 대한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 둘째, 바이오 분야의 대형 실용화, 미래원천 및 기초기술 등 중점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신약개발 등 국가적 중점영역에 대해 예산 및 관리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 셋째, 부처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과 NTRM 등을 고려하여 단기 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임계규모의 기업 탄생을 전후로 정부예산 증가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ii) 전략 2 : 바이오 산업의 촉진시책 강화

- 첫째, NTRM과 연계한 「산업화 기술지도」를 작성하는 등 산업화 지향적인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신약펀드」 조성 등 관련제도를 개선·확충하기로 했다.
- 둘째, 부처별로 분산·운영중인 임상·전임상 인프라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바이오 인력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 셋째, 신산업 창출에 적합한 정책분석·평가 시스템을 확립하고, 부처별 바이오관련 입법 시 상호 연계성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 의한 사전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iii) 전략 3 : 바이오에 대한 국민적 인지 확보

- 「바이오 정책포탈」 등을 활성화하여 시스템을 보완하며, ‘공공 인지도’(public acceptance) 등 국민적 지지기반을 점검하고 생명 윤리 등과 관련한 인력기반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건의 주요 내용들은 '07년 수립 예정인 「제2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관련부처별 시행계획」 등 정책수립과 '07년도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예산조정·배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